

11. 데카르트와 기계적 철학

- 15, 16세기 : 어떤 지식이 참된 지식(?) (종교개혁으로 인하여) → 지적인 권위가 없어짐.

[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지식의 위기]

- 르네상스 시기 많은 고대의 학파와 학설들이 쓴아져 나옴 → 지식의 위기
(다양한 견해들의 모순, 단일성·통일성 찾으려는 노력 실패)
- 피론주의(고대의 극단적 회의론) : 지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킴.
- ‘진실이나 참다운 지식은 있을 수도 없고,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없다.’ (p.123)(예, 감각을 부정) 16세기말-17세기 초에 성행.

[완화된 회의론]

- 지식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.
 1.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거해서 회의론자들의 근본 주장 자체를 반격.
(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감각으로 참/거짓을 가릴 수 있다)
 2. 완화된 회의론 : 어느 정도 확신이 가고,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 경험과도 부합되는 진리가 있음.(데카르트, 메르센)
 - 메르센 : 다방면에 걸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의론자들을 반격. 지식의 근거의 불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, 엄연한 지식이 있음도 발견.(예, 건물이 쓰러지지 않음, 기계가 작동함, 천체운동 기술)

[신독단론]

* 신독단론이 나타나 한동안 풍미하고 쇠퇴한 후 완화된 회의론자들의 실용주의적 견해가 받아들여짐.

- 3. 신독단론 : 절대 진리의 존재를 믿음.

인간이 실제 외부세계에 대한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.(후기 데카르트)

- 데카르트 : 체계적 의심의 방법(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것은 하나하나 차례로 부정해 나가는 방법 → 남는 것은 절대 확실한 생각)
 - ⇒ 감각부정, 외부의 존재 부정, 사는 세계 부정
 - ⇒ 남은 것 : ‘생각한다’ ⇒ 생각한다는 이 사실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.

- ⇒ 절대 확실한 지식의 근거가 무엇인가? : 지식의 명징성(clarity)
- ⇒ 참다운 지식의 기준 : 명징성 ⇒ 새로운 지식체계 구축 (신의 존재, 완전성, 지식증명, 우주전체에 대한 체계)
- 기계적 철학 : 데카르트의 우주에 대한 지식체계의 바탕을 이룬 것.

[완화된 회의론의 실용주의적 입장 : 수학적 지식]

- ‘완화된 회의론자’들의 실용주의적 입장이 받아들여짐 ← 과학혁명의 결과 출현한 새로운 과학의 특성과 부합.
- ‘해석학’에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남.(새로운 수학)
 - (해석학 : 해답을 얻는 것을 중요시. ↔ 기하학 : 옳은 해답임을 증명하는 것을 중요시)
- 데카르트 : ·미지수 x, y, z , 곱 xy , 제곱 x^2 → 해석적 논의를 간단히.
 - 해석기하학(페르마와 공동)
- 페르마 : 극대, 극소 개념.
- 뉴튼, 라이프니츠 : 미적분법 → 해석학의 완전한 성립.
 - ⇒ 수학적인 지식이 자연현상을 설명해주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보임.
- (데카르트가 “광학”에서 빛의 반사/굴절 법칙을 사용하고, 해석기하학에 근거하여 렌즈를 고안함)
 - ⇒ ‘완화된 회의론자’들의 지식에 대한 실용주의적 입장은 뒷받침

[기계적 철학 : 운동과 물질]

- 데카르트 : 감각과 판단에 있어서 절대 확실하고 ‘명징한’ 요소가 무엇인가?
- 외부세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절대 확실한 실재 : 물질과 운동 (데카르트 기계적 철학의 근본 요소)

[고대 원자론과 기계적 철학]

- 기계적 철학의 기원 : BC 5c 후반 고대의 원자론.
- 고대 원자론자들의 무신론적 경향 (p.129) ← 신의 개념(신이 준비해준 조화와 질서와 유한의 우주개념) 도입 필요.
 - (“무한한 진공인 우주에 무한히 많고 각양각색인 물질입자, 즉 원자가 임의로 무질서한 운동을 계속하며, 이들 원자들이 그 같은 운동을 하려는 경향이 원자를 자체에 내재하는 것”)

[자연철학, 실험철학, 기계적 철학]

- 갈릴레오 : 기계적 철학의 기본 입장을 뚜렷이 제시.
 - 일차적 성질 : 물질자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성질.(크기, 모양, 수, 운동, 배열)
 - 이차적 성질 : 물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성질.(색깔, 맛, 냄새, 소리)
 - 갈릴레오의 기계적 철학은 물리적 성질들에 대한 철학적 고찰.
- 데카르트, 보일 : 고대원자론에 신의 개념 도입.
 - 기계적 철학의 근본 주장에 신을 도입(p.129)
 - (신이 물질을 창조했고 그것에 운동을 부여했으며 그 운동을 보존해줄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이 만족해야 할 법칙도 마련하고 그것을 유지시켜준다.)
 - 데카르트 : 진공 부인, 물질 공간이 우주를 이룸, 원자의 존재 거부(쪼갤 수 있다.)
 - 보일 : 수많은 실험을 통해 기계적 철학의 타당성을 주장.
 - (기계적 철학과 반대가 되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전통적 화학자들의 이론이 타당하지 못함을 보임)
 - 기계적 철학의 타당성과 설명 가능성을 역설.
- ⇒ 물질과 그것의 운동으로 자연세계의 모든 것을 설명(기계적 철학) : 실험에 의해 검증.
- 17세기 후반의 새로운 과학 : ‘자연철학’, ‘기계적 철학’, ‘실험적 철학’.

지식의 위기에 대한 해결시도

1. 아리스토텔레스 철학
2. 완화된 회의론->실용주의적 입장
3. 신독단론: 데카르트, 지식의 명징성

기계적 철학: 물질과 그것의 운동으로 자연현상을 설명

- 기원: 고대원자론
- 데카르트와 보일이 신의 개념 도입

